

# 절에서 '봄 향기' 느껴 보세요

## 답사회·여행사 사찰순례 상품 인기

소속소속 찾아오는 봄을 따라절전나 들이를 해보자는 유혹(망고)이 부쩍 눈에 띄는 때다. '동백꽃여행' '일출여행' '산사체험' 등 반복되는 일상에 지루함을 느끼는 사람들이면 누구라도 귀가 솔깃해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특히 꽃피는 춘삼월을 맞아가족나들 이를 겸해 찾는 산사 체험은 사색과 자기 성찰의 기회도 되므로 종교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로 10년째 사찰을 비롯한 문화유적을 테마로 한 답사회를 운영하고 있는 '터사랑'은 봄기운이 퍼지면서 지난해에 비해 신청자들이 늘고 있다며 즐거워한다. 이렇게 많은 답사회와 여행사들이 사찰 순례를 테마로 잡고 여행 상품을 속속히 내놓는 이유는 무엇일까. 비씨투어의 국내담당 김성민 씨는 이런 현상에 대해 "우리 전통 문화의 대부분은 불교적 바탕 위에 형성된 것들이고, 전국의 유명한 산사는 경치가 수려한 곳에 위치해 여행 상

품 계획을 짤 때 사찰 한 곳쯤은 반드시 넣게 된다"고 말했다. 또 김씨는 "다른 종교 신자나 일반인들도 깊은 산 속에 위치한 사찰을 찾으면 도심에서 느끼지 못한 맑은 공기를 들이키며 사색의 시간과 여유를 누릴 수 있어 관광객들도 사찰을 선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경치 좋고 불교 문화재도 감상

### 장소 다양화·가이드 확보 과제

하지만 사찰 답사 프로그램을 떠났다 가 돌아온 관광객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교계의 전문 답사회를 따라 사찰을 답사했는데도 사찰의 문화재와 불교 유적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결모습만 보고 오는 경우가 많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학교 공부에 도움이 될까 해서 4차례 정도 사찰 순례 프로그램에 참가해 왔다는 김미선(진선여고 2년) 양은 "이제는 만큼 느끼는 생각으로 열심히 배우기 위해 수첩까지 준비해 갔는데 안내자의 설명



◇사찰 답사를 가서 부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답사객들.

을 듣고는 바로 수첩을 덮어 버렸다"며 "전문 지식을 갖추고 강의 능력이 있는 전문 안내자를 섭외해 여행 프로그램의 질을 높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계 일각에서는 장소 선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스님들의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사찰 선정에 있어서도 각 답사회마다 차별화 된 프로그램을 내놓는 것이 포교와 여행의 질을 높이는 데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현재 교계나 일반 여행사의 사찰 관련 상품을 유심히 살펴보면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국보급 문화재를 소장한 대규모

사찰에 편중돼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몇 번 정도 답사 프로그램을 따라가 보면 장소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금방 식상해 진다고 답사를 다녀온 많은 참가자들이 입을 모은다. 올 하반기부터는 주5일 근무가 실시되면 가족끼리 나들이 할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교계의 답사단체들이 질 높은 사찰 연계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내놓는다면 사찰 여행이라는 수단을 통해 포교에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 운재학기자의 손 이야기 ⑩

### ■ 주부습진

아직도 남성의 가부장적 권위가 완강히 파리를 들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주부'라는 말은 '굴레'로 임하기 쉽다. 전업 주부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사실 '전업 주부'라는 말도 상당히 우스꽝스럽다. 경제적 가치로 환산되기 어려운 가사 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한다면

다고 과연 주부들이 위로를 받을까? 어쨌든 한 가정에서 주부의 몫은 대단히 크고 무겁다. 이런 주부들의 삶을 한 마디로 표현해 주는 말을 고르자니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주부습진'이다.

흔히 주부습진의 주원인을 세제라고들 생각하고 스테로이드 연고 바르는 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끝없이 재발하는 데도 별 의심도 없이.

세제가 주부습진의 유일한 원

### 목등 피독기 이상 문제

### 약보다 운동이 해결책

인은 아니다. 세탁기라고는 상상도 못하면 시절에도 그런 증상은 없었다. 그렇다면 원인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는 얘기다. 피부의 스트레스를 인해 스스로가 극복하지 못할 정도로 허약한 체질이 근본 원인인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목과 어깨와 팔의 혈행 이상이 문제다.

주부들이여, 운동하시라.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일에 좀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이시라.



사고 만들어낸 말이 '전업' 주부인 것 같은데, 남자인 내가 들어도 알랑하기 그지없다. 가정이라는 울타리에 윤택되다시피 사는 삶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라는 것이 고작 '전업'이라는 호칭의 선사라니, 이젠 숫세 '가사도 어엿한 <업>'이라고 생각해 줄 테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하는 얘기가 아닌가. 그런

## 김현진양 만해백일장 대상

### 단체상 한마음 선원·안양예교

만해 스님의 문학정신과 민족자주독립 정신을 기리는 '3·1 민족독립운동 82주년 기념 제22회 만해 백일장'이 대한불교청년회 주최로 1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백일장에는 전국에서 초·중·고·대학생과 일반인 1000여 명이 참가해 '만해' '만남' '나눔' '만세소리' 등을 시제로 놓고 열띤 경합을 벌였다. 올해 백일장에 3대가 함께 참가한 이원욱(75·서울 동대문구합동) 가족 등 가족 단위 참가자가 많아 눈길을 끌었다. 이 할머니는 "작년에 참가한 손녀의 얘기를 듣고 온 가족이 함께

나왔다"며 "상은 아무도 못 받았지만 이런 뜻깊은 행사에 참가한 것만으로 즐거운 하루였다"고 말했다.

시(시조)와 신문으로 나눠 진행된 백일장에서 만해대상을 수상한 김현진(중원) 중상이고 3관을 비롯해 10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단체상은 안양예교와 한마음선원이 받았다.

'부처님과 나의 만남'을 주제로 만해대상을 받은 김현진 양은 "할머니 지장재일에 절을 찾으며 할머니는 떠나신 게 아니라 늘 마음 속에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었고, 그런 마음을 소설형식을 빌어 표현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소감을 밝혔다.

권현진 기자(jinny@buddhapia.com)

### 청소년 단신

### 대불련 새내기 포교나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는 2월 19일 신년 계획을 발표하고 3월부터 대학생 새내기 포교에 적극 나설 뜻을 밝혔다. 새내기 포교팀을 새로 구성한 대불련은 이 달 초까지 설문조사와 지도 상황과 등을 토대로 한 포교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격적인 새내기 포교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천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 대불련 홍보지 발행하고 버선과 배지 및 CD를 신입생들에게 나눠줄

방침이다. 또 군인대상과 휴학생 포교를 특별 관리 사업으로 지정해 전역이나 복학 후에도 대불련 활동을 계속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 어린이 연극교실 열려

경주 신라문화원은 10일 오후 2시부터 '어린이 연극교실'을 개최한다. 이번에 열리는 연극교실은 연기지도 위주에서 탈피해 심성개발과 발표력 향상, 대인관계 훈련 등 어린이들의 심성교육 훈련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참여 방식도 일방적인 강의식이 아닌 아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능동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054746-1950

## 주부 신행담

### 금강경을 외우며 ①

<금강경> 독송을 통해 불교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지 벌써 4년이 지났다. 매일 새벽 '바른법연구원' 법당에 나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내 몸은 몹시 가벼워졌고, 마음 역시 일찍이 체험해 보지 못한 환희심에 가득 차 있다. 하루에 3시간만 잠을 자도 전혀 피곤한 줄 모를 정도다.

내가 하는 공부란 주로 <금강경>을 독송하고 그 후에 들어 있는 "마음속에 올라오는 모든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라(無量衆生, 我皆令入無餘涅槃而滅度之). 다 바치고 나면 실로 모든 생각이란 것이 본래 없음을 알 것이다(如虛滅度無量衆生實無衆生得滅度者)"란 부처님 말씀을 몸소 실천하는 공부다. 이 말은 즉 탐심·진심·기쁨·슬픔 등 '내 것'이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 분별 망상이 본래 없는 것을 알게 된다는 뜻이다.

부처님께 온 마음을 바쳐 분별망상이 본래 없음을 알게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쉬운 글귀는 아니다. 그러나 나에게겐 처음부터 이 구절이 엔지 친밀하고

흐르는 대로 살면 되는 거지'하고 생각하며 침착한 마음을 먹으면 이상하리만큼 어려운 일도 척척 해결되곤 했다.

이러한 나의 생활 태도는 누구보다도 "부처님께 모든 생각을 바치고 나면 분별 망상이 본래 없는 줄 알 것이라는 말"을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더욱 <금강경> 독송에 줄 거운 마음으로 임할 수 있었다.



그림 · 이준석

## 잠을 적게 자도 피곤한 줄 몰라

고맙게 느껴져 이 공부를 시작하게 됐다. 누구에게 무엇을 받는 것은 기쁜 일이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나는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더 즐거웠다. 누가 부탁하면 내가 해 줄 수 있음에 무척 기뻐고, 받은 사람이 유용하게 쓰는 것을 보면 그 기쁨은 배가되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돈을 빌려 달라고 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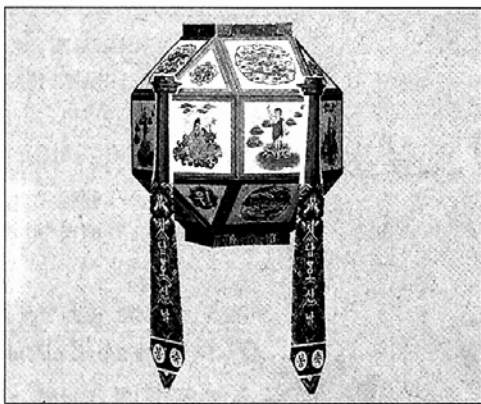
나의 돈을 꾸어서라도 빌려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이런 내 성품 탓에 돈을 떼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생활비를 전적으로 남편에게 의존하고 있었던 나로서는 그로 인해 때때로 심각한 고민에 휩싸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남편이 도와주는 것은 잠시뿐, 걱정해서 될 일도 아닌데 하고 생각하며 오히려 태평스럽게 지내자 남편이나 주위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했다. 이런 나의 행동 때문에 남편 속을 상하게 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하지만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걱정할 일이 뭐 있어, 물

새벽의 금강경 3회 독송으로 나는 하루를 힘차게 시작한다. 석가여래 앞에서 강의 듣는 마음으로 독송을 마치고 나면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상쾌한 느낌이 드는데, 그것은 그전의 생활이 나 가장생활에서 일찍이 체험해 보지 못했던 기쁨 체험이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다보면 대부분 저녁때까지 생활도 즐거움의 연속이 된다.

이렇게 새벽 기도를 시작한 뒤부터 잠도 많이 줄었다. 일부러 잠을 줄이겠다고 결심한 적도 없는데 3시간만 자도 몸과 마음이 개운했다. 성철 큰스님께 사는 살아 생전에 수행인들은 마땅히 잠을 적게 자고 말을 적게 하라고 가르치셨는데 아마도 스님이 살아 계셨으면 칭찬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웬일인지 잠을 적게 자도 하루종일 전혀 피곤하지 않았고, 높고 싶지도 않았다. 오히려 정신은 더욱 맑고 상쾌했다. (계속) 김초심행(서울시서대문구연회2동)

##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 가격 동결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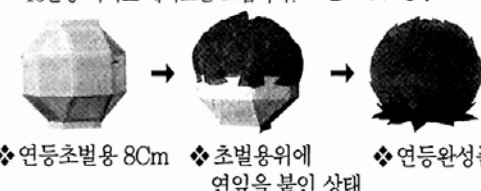


### 가격 동결 단행!!

●외환위기의 우리경제에 외국인 등 수입을 막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 조립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처음 사용하는 사찰을 위해 조립과정이 녹화되어 있는 15분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불교 TV 제작 —



◆연등초별용 8cm ◆초별용위에 연등을 붙인 상태 ◆연등완성품

##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품질이 필요없습니다!!

### 조립식 팔각등

###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난장으로 풀발이 하던 등 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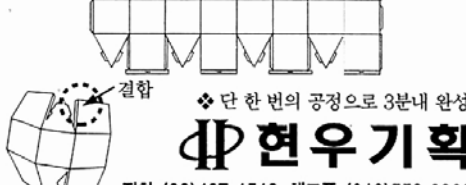
###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 ★ 경제적인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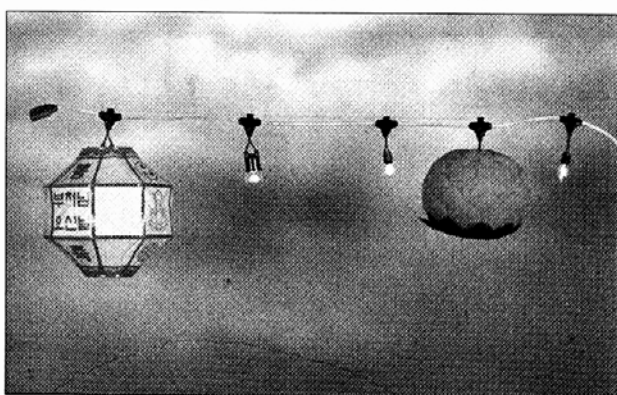
종래의 복잡한 다면화된 유통 구조적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 펼친 상태(골조 및 인쇄결지 합지 방식)



◆ 단 한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4P 현우기획 전화: (02)467-1513 핸드폰: (016)552-9360

## 삼보봉축행사용 연등전선<케이블>



### 등 간격

- ▶ 30cm, 50cm
- ▶ 1M, 2M, 3M
- ※ 간격은 주문제작 가능합니다.

### 불교행사 사찰용품일체

## 삼보전선만의 장점!!

물에 타지 않는다. 인장강력이 강하다.

기존전선보다 무게가 절반정도이다. 개폐 고리가 있어 설치가 용이함.

## (주) 삼보기획

☎ 031)972-5056 (Fax겸용), 011-327-5056 031)987-5316, 011-206-027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499-4